

 <b>주말한국문화원</b>		<h1>보도자료</h1>		국민과 함께하는 <b>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</b>
보도일시	2022.11.21	총 2쪽		
배포일시	2022.11.21.	담당부서	주말한국문화원	
담당자	사업담당 민병욱, 홍보팀 조은경(+81-3-3357-5970) postmaster@koreanculture.jp			

**日에서 한류 20주년을 앞두고 상생을 논하는 포럼개최**  
**한류 붐 이끈 한류 전문가 강연 및 노영심 음악감독 기념공연 열려**

주말한국문화원(원장 공형식)과 한국콘텐츠진흥원(원장 조현래)은 2023년을 ‘한류 20주년 기념의 해’로 선정해 한일 간 콘텐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문화를 일본 내에 공유하는 범 한류 기념의 해로 확대하고자 사전행사로써 한류 전문가를 초빙한 한일 한류 상생 포럼을 도쿄 주말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.



일본에서는 2003년 드라마 <겨울연가>\*의 NHK 방영으로 한류 붐이 일어나기 시작, 제4차 한류 붐까지 이어지면서 현재는 전 세대에 걸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.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뜸해지면서 일본의 중년 남성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<사랑의 불시착>, <이태원 클라쓰> 등과 같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작, 일본 넷플릭스 종합 인기 순위 1위에 장기간 랭크인하는 등 다양한 연령층을 통해 한국 드라마·영화에 대한 인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.

\*드라마 <겨울연가> NHKBS2(2003년)방송을 시작으로 지상파(2004년), 오리지널 자막판(2004년) 방송

이번 ‘한일 콘텐츠 비즈니스 상생 포럼’은 일본 내 유명 한국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▲후루야 마사유키 MC가 사회를 맡으며, 한류의 시초가 된 드라마 <겨울연가>의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의 ▲김희열 부사장과 전 NHK 서울지국장인 ▲쓰카모토 소이치 오비린(桜美林)대학 교수가 기조강연에 선다. 또한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끈 <이상한 변호사 우영우>를 비롯해 화제의 한국 드라마 OST를 다수 작곡한 바 있는 ▲노영심 음악감독의 드라마 OST 피아노 기념공연으로 행사의 의의를 더할 예정이다.

패널토론에는 한일 간 한류 비즈니스 최전선 현장에서 활약 중인 ▲가타오카 토모유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▲김용범 콘텐츠레인지 대표이사과 일본 내 한류에 정통한 ▲황성기 서울신문 논설고문 ▲쓰유키 에미코 한류피아 편집장이 등단해 한류 20주년을 맞이한 소회와 그간의 경험 공유 및 향후 한류의 방향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.

**<한일 콘텐츠 비즈니스 상생포럼>**

- 행사명: 한일 콘텐츠 비즈니스 상생포럼
- 일시: 2022년 11월 25일(금), 15:30~18:00
- 장소: 주말한국문화원 한마당홀
- 주최: 주말한국문화원, 한국콘텐츠진흥원
- 대상: 언론인 및 한류관련 업계 관계자
- 내용: 한류 전문가 기조 강연, 패널토론, 기념공연을 통한 한일한류 관계자 간 교류 협력 강화
- 상세일정

시간	내용
15:00~15:30	접수 및 입장
15:30~16:30	<b>환영사 및 기조강연</b> (사회: 후루야 마사유키 (한국대중문화저널리스트) - 기조강연① 김희열 (팬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사업본부 제작 부사장) - 기조강연② 쓰카모토 소이치 (전 NHK서울지국장, 오비린대학 교수)
16:40~17:20	<b>기념공연</b> - 한국드라마OST: 노영심 음악감독
17:20~18:00	<b>패널토론</b> - 한일 간 한류 비즈니스 최전선 현장 경험 공유 · 황성기 (서울신문 논설고문) · 김용범 (콘텐츠레인지 대표이사, 전 아뮤즈코리아 대표이사) · 쓰유키 에미코 (한류피아 편집장) · 가타오카 토모유키 (법률사무소 변호사, SMC 사외감사)
18:00	<b>폐회</b>
18:30~20:00	<b>참가자 교류회</b>

	<p>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말한국문화원 한국어보급사업팀장 민병욱, 홍보팀장 조은경(+81-3-3357-59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